

# 백두의 흰눈에 어려있는 성스러운 애국의 발자취

백두산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떠받치고 천하를 굽어보는 거인의 흰머리같다고 하여 백두산이라 부르고 조종의 산이라 하였다.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수천년, 사시장철 조종의 산을 변함없이 흰색으로 단장시켜주는 흰눈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백두산과 흰눈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겨울철이면 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흰눈이지만 백두의 흰눈은 민족의 넋을 안고있고 항일혁명의 성스러운 력사가 비껴여있어 겨레가 더욱 소중히 마음속에 안고 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백두의 흰눈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었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도 벌리시었으며 해방된 조국땅에서의 건국위업도 설계하시었다. 항일빨찌산들에게 있어서 백두산의 흰눈은 포근한 잠자리였고 때로는 식량이기도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항일의 전구들에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 백두산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눈보라사나운 백두산을 찾아가고있고 백두의 기상으로 오늘의 정면들파전에 한사람같이 밀쳐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길은 조선민족을 위한 가장 정의롭고 승리에로 가는 길이라는 철대적인 믿음, 이 로상에서 한치라도 탈선해서도 안되고 오직 끝까지 가야 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백두산악처럼 굳건히 자리 잡고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민족의 성산을 소중히 감사하고 더욱 숭엄하게 빛을 뿌려주는 백두의 흰눈.  
 그 흰눈에 성스러운 력사를 새기며 조선은 령도자의 두리에 모두가 굳게 뭉쳐 계속 힘차게 앞으로만 나아가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백두산의 흰눈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새기신 생의 첫 자국을 간직하고있으며 민족의 대통운을 맞이하였던 잊지 못할 그날의 감격을 소중히 품어안고있는 력사의 증전자라고 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땀수 없는 인연을 맺은 백두산의 흰눈이다. 흰눈은 이 땅위에 소리없이 내린다.  
 그 누가 알수 있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독립의 큰뜻을 품으시고 고향만경대를 떠나실 때 그

결음이 장차 조선을 해방시킬 항일빨찌산대장의 큰결음인 줄을.  
 조국땅의 자그마한 조약돌을 손에 꼭 감싸쥐신 그이께서 나라를 독립하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실 때 그이께서 후날 조국을 해방시켜주실 절세의 예국자이심을 그때는 아무도 알수 없었다.  
 조국해방을 위한 빨찌산 김대장의 첫걸음은 요란한 출정식이나 환영식도 없이 추려났은 조가집사람문앞에서 조부모님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조용히 새겨졌다.  
 흰눈은 땅위에 소리없이 내리지만 일단 눈보라가 되면 온갖 어지러운것들을 송두리채 날려버리고 은빛세계를 펼쳐놓는다. 백두의 눈보라가 바로 그러하다.  
 위대한 수령님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짓밟고 우롱하는 일제의 머위우에 무서운 철수를 내리시고 이 땅에서 몰아내신 백두의 령장이시다.  
 항일빨찌산 김대장이라는 빛나는 그 이름은 겨레의 가슴속에는 백두산이 낸 민족의 영웅을 맞이한 크나큰 공

지와 민족재생의 환희를 안겨주었지만 삼도왜적은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질리곤 하였다.  
 돌이켜보면 내리는 흰눈처럼 조용하고 소박하게 시작되었지만 백두의 눈보라처럼 거세차고 즐기차게 민족재생의 새봄을 펼쳐준 위대한 수령님의 영웅적인 항일대전사였다.  
 흰눈은 대지를 포근히 감싸안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늘처럼 내세우신 인민을 사랑과 정으로 뜨겁고 인력으로 끝이 없는 넓은 품에

소중히 품어안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땅의 찬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을 가슴뜨겁게 추억하고있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조차 눈내리는 현지지도의 길에, 인민행렬차에 계시었다.  
 흰눈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장군님에 대한 추억, 그래서인지 올해의 뜻깊은 광명성절에 평양을 비

롯한 많은 지역에서 하루종일 함박눈이 계속 내리어 그리움의 정을 더욱 불태워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 헌신의 철학인 《흰눈철학》으로 한평생을 불같이 사시었다. 자신을 강그리 불태우시며 이 땅의 빛이 되시고 열이 되시었다.  
 인민은 장군님 찬눈길 걸지 마시라고 노래도 부르고, 안녕을 간절히 축원했건만 그이께서는 인민의 락원을 지키고 꽃피우시려 내리는

찬눈비, 불어오는 눈바람을 기꺼이 다 맞으시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대지를 포근히 감사하고 생명수를 주는 흰눈과도 같이 인민을 품어 안으시고 사랑과 정을 주신 숭고한 애민헌신의 한평생이었다.  
 흰눈은 순결성과 단일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전체 인민이 걷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시었던 백두산의 정신과 신념, 의지를 백두의 흰눈처럼 순결하게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본시기자 고성호

## 기쁜 일의 있었음 때면

천갈래만갈래로 뻗은 인생길에는 때로 기쁜 일, 아쉬운 일도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생겨나는 경우는 아마 드물것이다.  
 수십년세월이 흐른 듯 꿈에서도 그려 못본 문명의 별천지들이 황홀경을 펼칠 때면 사람들의 가슴속에서는 향유의 기쁨에 앞서 끝없는 아쉬움이 샘솟아오른다.  
 마치 홀려온 세월의 대명사이런듯싶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나라에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 아쉬움 누를길 없으시어 때로는 환히 웃으시며, 때로는 조용히 눈곱적시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뜨겁게 되뇌이시는 심중의 토로.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인민들을 위한 재부가 나날이 늘어나는것을 놓고서도 왜서 그의 가슴속에는 바치신 로고보다, 느끼시는 창조의 희열보다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지워지지 않는 명물로 남아있는가를.  
 지워지지 않는 명물, 이 한마디가 다 말해준다.  
 누구보다 잘 아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실 곳 그리도 많으시었다. 그 길에서 나라의 재부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한평생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아프게 갈마드시었다.  
 인민을 위해 생의 전부를 내대신 장군님께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한번만이라도 보여드리고싶으신 간절한 마음 사무쳐올수록 인민을 위한 현 지지도의 발걸음을 더욱 다그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승리는 웅당 빛나는 법이지만

위대한 계승으로써 더욱 빛난다고 했다.  
 지금에 와서 보면 피눈물의 12월에서 오늘까지 홀려온 이 땅의 세월을 한해한해가 지나갈수록 높아지는 비약의 계단이었고 솟구치는 기적의 용암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 한마디에 다 비껴있었다.  
 지난 10년간 것처럼 몰라보게 이 나라를 전변시킨 비중유의 창조력이 어디서 샘솟은 것인지.  
 그의 초인간적인 정력과 분투의 열도가 어떤 소원에 시계를 두고있었는가를,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인간의 생물시간마저 자신의 혁명시간으로 바꾸어놓으신 그 피방울같은 한초한초에 어떤 열망이 끓고있었는가를 만만년만년에 특기할 사변들이, 수십년세월도 무색케 할 무수한 인민의 금방석들은 말없이 전해주고있다.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기뻐할 때나 어려울 때에도 나라와 인민의 전도를 놓고 위대한 장군님과 심장의 대화를 나누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고뇌와 심혈, 사색과 열정, 그 피라는 헌신의 날과 달들을 어찌 말과 글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실로 천지풍파에도 끄떡없으신 그 담대한 배짱, 캄캄한 시련의 암흑을 헤가르며 진군로를 열어나가신 그 의지의 힘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의 기둥이시며 힘의 원천이시며 앞길을 밝히는 등대이시었다. 예나 지금이나 경애하는 원수님께 힘을 주고 박동을 주시며 그이께서 가시는 곳 그 어디나 함께 가시면서 신심과 용기, 지혜와 열정을 북돋아주신다.  
 하저늘 이 강산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 무수한 재부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추억의 산물만이 아니다. 위대한 삶의 순간순간이 장군님의 넋원을 현실로 꽃피우실 그 의지로 맥동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의 기념비이다.  
 어느것 하나 장군님의 뜻에서 출발하지 않은것이 없고 장군님의 유훈과 이어지지 않는것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과학이라고 하시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또박또박 정리 기록한 그 수첩을 또 하나의 심장처럼 품고 오직 수령님들의 뜻대로만 기적의 세월을 펼쳐가시었다. 바로 그래서 이 땅에 드리운 시련은 다른 나라 같은 얼얼한 무너졌을 최악의 역상이었지만 공화국은 언제나 한번자가 정한 길을 에둘거나 꺾어진적이 없었고 언제나 승리만을 펼쳐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이 말씀이 울리는 곳마다에서 세계는 또다시 목격하게 될것이다.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그 넋원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신 그 피방울같은 한초한초에 어떤 열망이 끓고있었는가를 만만년만년에 특기할 사변들이, 수십년세월도 무색케 할 무수한 인민의 금방석들을 말없이 전해주고있다.  
 본시기자 박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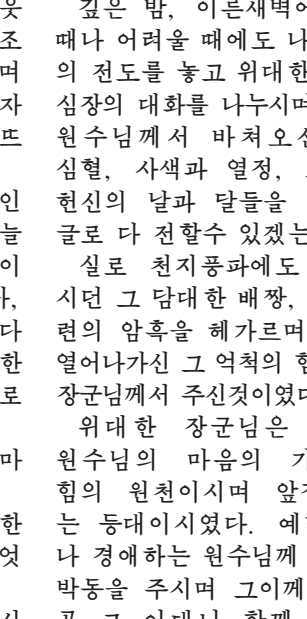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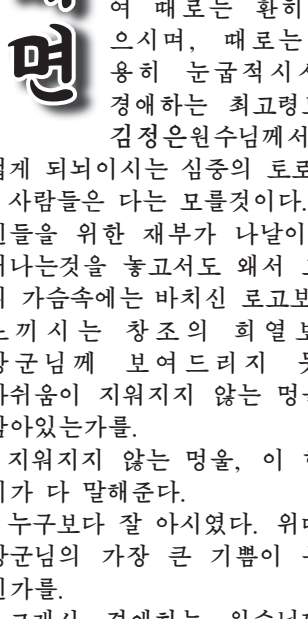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다.  
 몇해전 5월 어느날이였다. 류경안과 종합병원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것이이며 꼭 하고싶었던 일이였다고 하시었다.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류경안과 종합병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자고 이르신 그이께서는 그로부터 몇달후 완공된 병원을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은 병원다운 병원, 세계적수준의

병원, 모든것이 마음에 드는 내 놓고 자랑할만한 한 인민의 병원이 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에서 하나의 혁명, 본보기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각 도들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하나씩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계절에 완공된 온실농장을 찾으시어 남새를 공급하는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꼭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하시었다.  
 이미 한해전에 함경북도내 인민들에게 절실한 그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마련하여주고싶으시어 대구모담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을 건설할 구상을 펼치시었으며 한달사이에 두차례나 현지를 답사하시면서 부지도 정하여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무어주시

고, 전국적범위에서 온실농장을 현대적으로 실리에 맞게 건설하는 사업을 계속 다그쳐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미 한해전에 함경북도내 인민들에게 절실한 그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마련하여주고싶으시어 대구모담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을 건설할 구상을 펼치시었으며 한달사이에 두차례나 현지를 답사하시면서 부지도 정하여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무어주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차려지게 하시려 마음쓰신 그이께서는 완공된 온실농장을 찾으시어 남새를 공급하는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꼭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꼭 하고싶으셨던 일, 그 값고값은 일들은 모두가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것이며 그이의 애민헌신의 로고속에 무수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나라의 도처에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옥류야동병원과 류경안과병원,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려명거리, 산간부화도시의 표준으로 일떠선 삼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그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강주혁



류경안과종합병원

양덕온전문화휴양지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